

전라남도 일부 가정의 식습관 및 분식 기호도에 관한 조사 연구

정해옥 · 정복미*

초당대학교 조리과학부, 여수대학교 식품영양학과*

본 연구는 전라남도 일부 가정의 식습관, 외식상태 및 분식 기호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하였으며, 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, 가족의 외식빈도 및 종류, 분식류 섭취빈도 및 종류에 대하여 조사하였다. 가정의 월수입은 100만~200만원 이하가 50.1%로 가장 많았으며, 가족구성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비율이 75.6%로 가장 높았고, 가족수는 3~4명이 57%로 가장 높고, 주거형태는 아파트가 67.1%, 주택의 소유형태는 자가 69.9%로 가장 높았다. 가족의 외식횟수는 1개월에 1회가 가장 많았으며, 연령이 낮을수록, 학력이 높을수록 외식횟수가 증가하였고, 외식은 주로 한식이었다. 분식류는 가족이 일주일에 2~3회가 가장 많았으며, 분식류의 종류는 가격면에서 부담이 없는 라면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. 이들 결과로 볼 때 여수지역 가정의 외식종류는 주로 한식으로 빈도는 낮았으며, 분식에 대한 기호도는 예부터 남도지역의 먹거리가 풍부하였기 때문에 면류에 접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.